제주Utd, 서울 원정서 최초 6연승 '찜'

하나원큐 K리그1 2023 14R 제주 vs FC서울 빅뱅
20일 오후 6시 서울월드컵경기장서 2, 3위 맞대결

거침없는 연승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제주유나이티드(이하 제주)가 마침내 구단 사상 최초로 K리그1에서 6연승에 도전한다. 6연승의 제물은 바로 FC서울이다. 그것도 서울 원정에서 이뤄지게 된다.

제주는 오는 20일 오후 6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원큐 K리그1 2023 14라운드에서 FC서울과 격돌한다. 양 팀의 순위는 승점 23으로 동률이지만 다득점에서 서울(27)이 제주(20)에 앞서며 2위를, 제주가 3위를 기록하고 있다. 4위 포항스틸러스도 같은 승점이지만 다득점에 밀렸다. 2위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승리하면 선두를 추격할 수 있지만 패하면 중위권의 추격을 따돌려야 하는 신세가 된다.

양 팀 모두 최근의 상승세가 놀랍다. 제주는 파죽지세로 5연승을 달리고 있다. 직전 13라운드에선 수원FC를 상대로 올 시즌 최다골 차(5-0)로 승리하며 라운드 베스트팀에 선정되기도 했다. 멀티골을 기록한 서진수를 비롯 김봉수, 김주공, 헤이스, 유리 조나탄 등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다. 이날 경기를 통해 제주에서만 200경기를 치른 이창민의 도움도 눈에 띈다. 제주 생활 8년 차인 이창민은 현재 선수단에서 가장 오랫동안 제주 유니폼을 입고 있다. 게다가 군 입대를 앞두고 팀이 최고의 성적을 내는데 일조한다는 각오로 매 경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도 팀의 상승세를 이끄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맞서는 FC서울 역시 화끈한 공격력을 앞세워 선두 울산을 추격하고 있다. K리그1 12개 팀 가운데 가장 많은 득점을 터뜨리면서 경기당 2.07골을 기록하고 있다. 나상호를 포함 임상협, 박동진, 팔로세비치(각 3골) 등 총 12명이 골을 기록하는 등 다양한 선수들의 발끝에서 득점이 나오고 있는 것도 장점이다.

제주가 서울을 꺾는다면 구단 통산 최초로 6연승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수립하게 된다.

한편 양 팀은 지난 4라운드 맞대결에서 서울이 2-1로 승리했다. 하지만 최근 10경기 맞대결에서는 6승 3무 1패로 제주가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조상윤기자

3회 연속 대회 2관왕을 차지한 김진석이 장애인체육회 등 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석·이선희·배민준 2관왕 대열 합류

제17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육상 김진석은 3회 연속 2관왕

김진석(제주영송학교)이 제17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2관왕을 차지하며 3회 연속 대회 2관왕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제주도선수단은 대회 3일째인 18일 금 3, 은 1, 동 3 등 7개를 획득하며 모두 18개의 메달을 수확해 조기에 메달목표를 달성했다.

김진석은 이날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대회 육상 남자 200m T37(고)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전날 100m T37(중/고)에 이어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이선희(서귀포온성학교)도 2관왕에 올랐다. 이선희는 육상 여자 200m T37, T38(고)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100m T37(고)에 이어 두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수영의 배민준(중문초) 역시 이날 울산문수실내수영장에서 치러진 배영 100m S14(초)에서 금메달을 추가하며 2관왕 대열에 합류했다. 배민준은 지난해 대회까지 2회연속 은메달리스트였다가 이번 대회를 통해 2관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남고 F37 포환던지기에서 홍심석(서귀포고)이 은메달을, 남중 T20 200m의 오동근(서귀포중)은 동메달을 추가했다.

동천체육관에서 열린 탁구 남자 복식 CLASS 11 성은철, 장효준(이상 제주서중)은 동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울산 제2장애인체육관에서 열린 슐런(시범종목) 남자 5인조 단체전은 한진규, 오승철, 강원준, 배종우, 양근철(성산고)이 동메달을 획득했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제주 스포츠 꿈나무들의 아름다운 도전

오늘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선수단 결단식
오는 27~30일 울산시… 금메달 10개 이상 목표

제주의 스포츠 꿈나무들이 전국의 내로라하는 선수들과 최고의 경쟁을 펼치기 위한 결의를 다진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늘 오후 4시 제주복합체육관에서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제주특별자치도 선수단 결단식을 갖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결단식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업무 소통을 통해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으로 처음 도교육청과 도체육회가 공동 주관해 선수, 학부모, 교사, 지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는 29개 종목에 걸쳐 449명(초 196명, 중 253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제주도선수단은 지난해 대회에서 금 8개, 은 11개, 동메달 15개를 획득하는 성적을 냈기 때문에 올해 대회에서도 금메달 10개 이상을 목표로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선수단장인 김광수 교육감은 "한계에 도전하는 스포츠 꿈나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모든 선수 및 임원들이 안전하게 대회를 마치길 응원한다"는 격려의 메시지를 선수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울산 2023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THE 52nd NATIONAL JUNIOR SPORTS FESTIVAL

명예선수단장인 송승천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도 "올해 대회는 제주도교육청이 중심이 돼 출전하는 첫 대회여서 의미가 있다"면서 "도체육회에서도 많은 학생선수들이 참가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응원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경기력 향상을 위해 훈련비 확대, 학생선수 재활치료비 지원 등의 적극적인 학교운동부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상윤기자

기뻐하는 맨시티 선수들 18일(이하 한국시간)영국 맨체스터의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2023 UCL 준결승 2차전에서 맨체스터 시티(맨시티)가 홈에서 스페인의 거함 레알 마드리드에 4점 차 대승을 거두고 첫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우승까지 1승만을 남겨뒀다. 연합뉴스

서귀포축구센터 고교축구 8강 '눈앞'

제47회 문체부장관기 18강 서울 인창고 제압
오늘 경북 오상고와 16강 격돌… 상승세 기대

서귀포축구센터가 제47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고교축구대회에서 8강전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올해 5월에 개최된 고교축구대회에서 유일하게 본선진출에 성공한 서귀포축구센터는 18일 경북보건대 구장에서 열린 대회 18강전에서 서울인창고와 접전끝에 1-1로 비긴뒤 가진 승부차기에서 5-4로 승리했다.

서귀포축구센터는 이날 경기에서 전반 막판 이윤건의 선취골로 앞서갔지만 후반 27분 상대 수비수에게 동점골 내주며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서귀포축구센터는 오늘 대한법률구조공단 김천지사 구장에서 경북 오상고와 8강 진출티켓을 놓고 격돌한다. 휴식없이 이틀 연속 경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체력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승세를 타고 있어 해볼 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상윤기자

올바른 지식, 깨끗한 미래

태양광 발전 바르게 알고 이해하기 / 제주솔라에너지 지식 캠페인 - 5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318호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주 관 기 관 : 한국에너지공단
▷정부보조금 : 280만원 무상지원
(태양광 3kW 기준)
▷지 원 대 상 : 기존/신축 주택 소유자
※공동주택(아파트) 공용전기 지원가능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중

Q : 수상태양광 설치로 수질오염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A : 실증조사 결과 수질 및 생태계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2차례에 걸친 수상태양광 주변 수질 및 퇴적물 분석 결과, 수상태양광으로 인한 수질오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상태양광 설치시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수질오염, 사고예방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수상태양광 주변 환경 분석 결과, 일반지역과 생활환경 기준 항목에서 큰 차이가 없었으며 조사 수치는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보다 낮아 환경적 영향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분석됨
- 정부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착공전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여 입지선정, 수질 및 수생태계 영향, 시설 안전성, 경관 영향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있음
-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댐·저수지 수면에 수상태양광이 설치되는 경우 수도용 자재위생 안전기준에 적합하고 오염물질 미발생 내습형 모듈을 사용하고 있음. 또한, 사업 착공부터 사업 준공 후 10년간 장기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발생시 즉시 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부 지원사업 상담/접수 제주솔라에너지(주) 742-5775 제주시 선반남2길 31 www.jejusolar.co.kr

자료출처 : 한국에너지공단「태양광 & 풍력발전 바로알기」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및 AS전담기업

*참여기업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정부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